

일반

기억공간을 통한 문화적 기억*의 체험과 계승

청년세대**의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 공간경험을 사례로***

Experience and Succession of Cultural Memory via Places of Memory:
A Case Study on Spatial Experience of Young Generation in places of Memory
for May 18 Democratic Uprising

오주원****

이 연구는 '기억공간(place of memory)'과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두 개념을 활용하여 청년세대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과거의

- * 본 연구가 유사한 개념인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 아닌 '문화적 기억'을 주요 개념으로 채택한 이유는 두 개념 사이의 지향성의 차이 때문이다. 집단 기억은 기억의 집단성,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기억의 공유에 주목한다(Knapp, 1989; Hirst and Echterhoff, 2008; Hirst and Manier, 2008; Wertsch and Roediger, 2008; Roediger and Abel, 2015; Wertsch and Jäggi, 2022). 반면, 문화적 기억은 기본적으로 기억의 집단성에 주목하기는 하나, 기억이 세대를 걸쳐 계승되고 이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에도 주목한다(Halas, 2010, Hubner and Dirksmeier, 2023). 본 연구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세대 간에 계승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화적 기억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사용한다.
- **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청년세대'는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할 수 없었고, 교육·구술·미디어·기억공간 방문 등 간접적인 경로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1980년 이후 출생자를 가리킨다. '청년세대'라는 용어가 5·18 민주화운동을 간접적인 경로로 경험한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청년세대'를 연구대상으로 상정한 것은 연구의 분석틀이 '공간을 통한 기억의 세대 간 계승'이기 때문이다. 1980년에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세대의 자녀세대, 혹은 손자녀 세대로서 이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거나, 당시 상황을 표현한 미디어 자료, 기억공간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간접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세대가 현재의 청년세대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이들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상정하였다.
- *** 이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임.
-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fernweh@snu.ac.kr)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계승되는지 분석한다. 기억공간은 문화적 기억이 후대에게 체험 및 계승되는 통로라는 가정하에, 심층인터뷰, 경관 분석 등의 연구방법론을 사용해 ① 기억공간이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사유를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 ② 기억공간의 구성요소 중 문화적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찰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공간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세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매체이자 통로로 기능한다. 둘째, 기억공간에 구현된 가시적인 흔적·자료, 공간의 역사적 의미, 공간이 일상생활·현재와 교차하는 양상은 문화적 기억의 형성 및 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공간을 통한 문화적 기억의 계승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 기여하고, 향후 기억공간 조성 방향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기억공간, 문화적 기억, 5·18 민주화운동, 청년세대, 공간경험

1. 서론

본 연구는 기억공간을 통해 특정 세대가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는지, 기억공간을 통해 해당 세대는 해당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기억공간의 구성요소 중 과거 사건이 문화적 기억의 형태로 계승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은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과 ‘기억공간(place of memory)’이다. 문화적 기억은 문자, 구술, 기념물, 의식 등의 상징을 통해 세대를 걸쳐 계승된 과거에 대한 이해이다(National Geographic Education, 2023). 기억공간은 과거 사건이 가진 상징성을 물질적·공간적으로 구현한 장소이다(신혜란, 2016). 본 연구는 기억공간을 ‘역사적 사건을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시켜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매체이자 통로’로 파악한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후대에 문화적 기억으로 형성 및 계승되는 과정에서 기억공간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문화적 기억과 기억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이다. 5·18 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국가에 의한 군사주의적 폭

력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남겼으며(김미경, 2008), 이 사건을 미술작품, 영상물, 문학작품 등의 문화적 방식을 통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시켜 사건이 가진 상징성과 의미를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수 이루어졌다. 망월모지공원, 전남대학교 캠퍼스, 구 전남도청, 전일빌딩과 같은 기억공간 조성도 이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의 사례에서 기억공간은 문화적 기억을 전달 및 계승하기 위한 통로로 쓰이지만, 동시에 해당 장소가 지닌 문화적 기억 때문에 기억공간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의 과정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억공간을 방문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렇게 기억공간이 사람들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출생해 해당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겪은 적이 없는 청년세대가 기억공간에 방문 및 경험함으로써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이들에게 경험되고 계승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기억공간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억공간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역사적 담론에 관한 연구(Kappler, 2017; 이민경, 2022), 관련 행위자 간 상반되는 기억공간 공간전략에 관한 연구(Shin and Jin, 2021), 관련 행위자 간 의견 충돌 및 갈등에 관한 연구(Shin, 2016), 도시 환경 측면에서 기억과 공간 사이 관계에 관한 연구(Flynn et al., 2014), 후기 식민주의 기억공간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桑林賢治, 2021) 등이 이루어졌다. 정리하자면 기억공간 조성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담론, 갈등,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억의 공간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기억공간을 통한 역사적 사건의 간접적 체험과 계승,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문화적 기억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보면, Gerster and Maly(2022)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과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박물관들이 해당 사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사고와 관련된 문화적 기억 내에 어떠한 공식적인 담론이 만들어졌는지 고찰한다. Pulido(2023)는 미국의 국가역사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s)에 내재하는 문화적 기억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백인우월주의를 대변해 왔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McDowell(2004)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라트비아인 여성들을 사례로 문화적 기억과 망각의 맥락에서 이주민 여성의 혼란과 상실, 성장에 대해 연구한다. Hussen et al.(2020)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라비 공공 광장(Orabi Public Square)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문화적 기억이 장소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문화적 기억과 공간,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반면 문화적 기억이 공간이라는 통로를 통해 후대에 계승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간을 통한 문화적 기억의 계승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분야의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공백을 메워 학술적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동시에 기억공간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미래 세대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 고찰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공간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가 해당 사건을 인식 및 사유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해당 세대가 과거 사건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두 연구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 구술, 미디어 등 간접적인 경로로만 경험한 세대를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기억공간을 통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이들에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기억공간이 해당 세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기억공간의 어떠한 요소가 문화적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절에서는 문화적 기억과 기억공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분석틀을 마련한다.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이 기억공간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문화적 기억으로서 이들의 인식 속에 착근되는지 고찰한다. 5절에서는 기억공간의 공간 구성과 청년들이 언급한 기억공간의 특징을 연관 지어 기억공간의 어떠한 요소가 문화적 기억의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고찰한다.

2. 문헌연구: 기억공간과 문화적 기억

기억공간(place of memory)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집단적 기억을 물질적으로 재현한 장소로서, 과거 사건이 가진 상징성을 현재와 미래에 물질적·공간적으로 구현한 장소이다(신혜란, 2016). 이 개념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해당 사건들이 유발한 집단적 기억과 상징성, 역사적 의미를 물리적인 공간에 구현한 것이 기억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 만들어지고 소비되었던 역사는 짧지 않다. Till(2003)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대륙에서는 국가가 성립되었던 단계에서 사회·권력·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인 기억공간이 만들어졌다. 또한 Hagen(2022)의 연구에 따르면 나치 독일 당시 나치당은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고취하기 위해 기억공간을 지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가 폭력으로 발생한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의 기억공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신혜란(2022)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국가 폭력과 같은 '어두운 기억'이 기억공간의 유행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억공간 조성 과정에서, 과거 담론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공간에 경관, 기

념비, 유적지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Foote and Azaryahu, 2007). 여기서 과거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 정치인, 부동산 개발업자, 이웃 주민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담론의 형성과 공간의 조성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참여주체 간 갈등과 대립을 수반한다(DeTurk, 2013). 누구의 가치와 주장이 정당성을 얻어 공간에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Rose-Redwood et al., 2021), 현실적으로 모든 공간을 기억공간으로 기념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공간 사이에 선별과 배제가 발생하기도 한다(Foote and Azaryahu, 2007).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화될 수 있다(Dwyer, 2002). 또한 같은 공간을 경험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담고 있는 기억이 방문자 개개인에게 다르게 수용될 수 있으며(Tsiftsi, 2018), 기억의 공간적 맥락과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Foote and Azaryahu, 2007; Till and Kuusisto-Arponen, 2015). 이처럼 기억공간의 물리적 형성과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은 사회·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임과 동시에(Hubner and Dirksmeier, 202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다.

기억공간에 재현된 사건 당시의 흔적은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기억 및 기념하게 하고, 그들을 다른 시간과 공간에 데려다 놓는다. 이 과정을 통해 기억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억공간에 시각적·물질적으로 재현된 역사적 사건을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감정적인 연관을 느끼게 된다(Sather-Wagstaff, 2011). 또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 조성된 기억공간은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쇼핑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과 역사적 사건이 교차하게 한다(Drozdzewski et al., 2016).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기억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의 이상이나 경험을 전제하지만, Halas(2010)와 Mead(1964; Halas, 2010에서 재인용)는 기억에 대해 ‘과거와 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Halas(2010)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현재, 미래와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당시 시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기억을 과거 시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와 연결하는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기억의 개념과 연결된다. 문화적 기억 개념에 따르면, 과거의 사건은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방식을 통해 후대에 계승됨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National Geographic Education, 2023).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해당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기억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역사적 사건이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가진 의미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있어야 과거로부터 기원한 역사적 사건이 미래에도 의미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Hałas, 2010). 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해당 사건의 의미가 전달된다.

인간은 경험, 장소, 감정, 사물을 통해 기억과 마주칠 수 있다(Drozdzewski et al., 2016). 특히 장소에서의 기억은 특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정호기, 2000; Drozdzewski et al., 2016).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남긴 상흔(scarring)은 사물과 장소, 사람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키고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흔적(trace)을 남기는데, 이 흔적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단서는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든다(Drozdzewski et al., 2016).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규범적인 사고 과정에 변주를 부여하고, 우리를 일시적으로 다른 시공간에 데려다 놓는다(Drozdzewski et al., 2016). 현대의 기억(modern memory)은 흔적의 물질성, 기록의 신속성, 이미지의 가시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Nora, 1989),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물리적인 형태의 흔적이 신속하게,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야 기억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은 사건 발생 시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서 기원했지만 미래 세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의미와 연관되고, 세대를 걸쳐 전달된 기억의 의미가 미래와 미래의 목표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Halas, 2010; Hubner and Dirksmeier, 2023). 즉, 과거의 사건이 세대를 걸쳐 후대에 계승되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거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관계를 맺으며 확장된다. 또한 문화적 기억은 상징적인 표현 방식에 의해 명징화되어 나타나므로(아스만, 2011), 과거 사건을 직접 겪은 경험이 없는 세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식 및 사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기억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 문화연구, 문학, 커뮤니케이션학, 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Hoelscher and Alderman, 2004), 오늘날 지역 차원과 글로벌 차원 모두에서 문화적 기억은 트라우마(trauma)와 관련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Halas, 2010). 기억 연구에서의 트라우마는 이전에는 개인들의 물리적인 경험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공동체의 집단적인 경험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Erikson, 1994; Halas, 2010에서 재인용).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이 특정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경계를 넘어서(Alexander et al., 2004), 목격자, 간접적 참여자로 그 영향의 범위 역시 확장되어 이해된다(Halas, 2010).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외부에 의해 망각되었거나 억압 받았던 사람들이 증언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Hua, 2005).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억공간과 문화적 기억은 서로 별개의 영역에서 연구되었다. Sather-Wagstaff(2011)의 연구처럼 기억공간 방문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감정적 연관을 느끼거나, Drozdowski et al.(2016)의 연구처럼 공간에 조성된 과거 사건의 흔적을 통해 해당 사건을 기억·기념하게 되는 모습에 대한 연구 등 공간과 기억을 연결하는 시도를 한 연구는 존재한다. 하지만 두 개념을 결합하여 공간을 통해 기억이 세대 간에 계승되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위 문헌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을 통한 기억의 세대 간 계승'이라는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분석틀에 따르면 공간에 물질적·가시적으로 구성된 과거 사건에 관한 흔적·이미지는 해당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체험하고 기억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후대에 계승되며, 나아가 이들이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게 만드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렇게 공간을 통해 계승된 기억은 고정된 형태와 의미로 존재하지 않고 미래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연관되어 그 의미가 확장된다. 본 연구는 이 분석틀을 사용해 청년세대의 기억공간 방문 경험을 분석하여 공간을 통한 기억의 세대 간 전승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현지 방문과 심층인터뷰, 두 가지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현지 방문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전남대학교 캠퍼스, 구 전남도청, 전일빌딩, 망월묘지공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등)을 방문하여 경관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 총 약 20여 시간에 걸쳐 해당 기억공간에 머무르며 각 기억공간이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여 전시하고자 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유연한 대화 형식을 빌려 피면담자의 구두 진술을 수집하여 사건에 대한 피면담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다(신혜란, 2007). 이 연구방법은 피면담자와 피면담자의 답변이 내포하는 의미를 깊게 이해 및 탐구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DiCicco-Bloom and Crabtree, 2006), 무형의 기억이 기억공간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개인의 인식에 착근되고 경험되는 과정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 심층인터뷰(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를 통해 피면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해당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공간상에 물리적으로 재현한 기억공간에 대해 어떠한 인식

〈표 1〉 피면담자 정보

구분	성별	출신지	성장지	광주 거주 기간
A	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3년
B	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4년
C	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4년
D	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10년
E	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2년
F	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4년
G	여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7년
H	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6년
I	여	경기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5년
J	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4년
K	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20년
L	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7년
M	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5년
N	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14년
O	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4년
P	남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15년

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각 피면담자가 본 연구의 연구질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되 피면담자가 자유롭게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이를 통해 피면담자들로 부터 다양한 인식과 견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6건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각 피면담자의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인 청년들이다. 피면담자를 전남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한정된 이유는 전남대학교가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이자, 대표적인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이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캠퍼스 곳곳에 해당 사건을 기념하는 거리, 전시관, 조형물 등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 학생들의 경우 기억공간에서 많

은 시간을 생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고 체험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기억공간에 대한 인식이 반복적이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은 전남대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남대학교 외 기억공간 방문 경험,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에 대한 인식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면담자 간 인터뷰 결과가 일반화되지 않고 보다 더 풍부한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피면담자 한 명당 약 30분에서 한 시간가량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피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전사하였다. 면담 질문은 기억공간 방문 당시 인상과 기억, 기억공간 방문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식에 미친 영향, 현존하는 기억공간에 대해 아쉬운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들은 2절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틀인 ‘공간을 통한 기억의 계승’에 기반하여 해석되었다.

4. 기억공간을 통한 청년세대의 문화적 기억 형성

본 연구의 피면담자인 청년세대는 1980년 이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고, 교육, 미디어, 구술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만 경험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을 방문하며, 해당 공간에서의 공간 경험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공간 경험이 해당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가 해당 사건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억공간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 구체화

많은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 방문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생각을 더 구체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의 교육, 가족과 친척의 구술, 미디어를 통해 접한 5·18 민주화운동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면, 기억공간에 직접 가본 이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이제 사실 약간 듣기만 했을 때는 뭐랄까 전래동화 듣는 것처럼 (중략) 광주 토박이 선생님들은 그때 직접 나갔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관련 스토리를,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현실성 없는 영화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중략)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거짓말 같죠. (중략) 근데 진짜 그 장소에 가보면 '진짜 그랬구나. 진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구나' 확실히 듣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은 느껴지는 체감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중략) 그 장소에 직접 가본 순간 확실히 좀 달라요, 느껴지는 게. _피면담자 A

우리가 보통 5·18을 학교에서 처음 배우잖아. 그건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공감보다는 진짜 학습, 암기 이런 거라서 크게 와닿지 않았던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망월묘지공원)를 방문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5·18에 대해 가졌던 추상적인 생각이 구체화되는 느낌이었어. _피면담자 J

피면담자 A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구술로 접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게 느껴졌지만, 기억공간을 방문했을 때 구술로 들었던 이야기가 진실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피면담자 J 역시 학교 수업 시간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울 때는 그 의미와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기억공간을 방문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인

식이 구체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사례는 기억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에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에게는 교육, 구술보다 기억공간 방문이 더욱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 이후 출생한 루마니아의 젊은 세대들이 공산정권 당시 지어진 건축물과 연관 지어 공산주의 시절을 인식한다는 Crețan and Doiciar(2023)의 연구를 상기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과 만나게 되며 과거와 접촉하게 된다(아스만, 2011).

본 연구의 피면담자 중에는 J와 같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망월묘지공원(구 묘역)과 국립5·18묘지(신 묘역)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국립5·18묘역의 입구인 ‘민주의 문’(피면담자 B), 망월묘지공원에 펼쳐진 희생자의 묘지와 사진(피면담자 C, I), 미수습자를 기리는 공간인 ‘무명열사묘’(피면담자 E), 묘역의 넓이(피면담자 H) 등의 요소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일빌딩과 구 전남도청 외벽의 총탄 흔적 등이 5·18 민주화운동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계기였다고 응답하는 피면담자도 있었고, 전일빌딩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내부에 전시된 당시 사진 자료가 자신의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피면담자도 있었다. 이렇게 피면담자들은 묘역의 엄숙한 분위기, 전일빌딩 및 구 전남도청 외벽의 총탄 흔적, 전일빌딩 및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시된 당시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던 5·18이 조금 더 나의 차원에 있는 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으며(피면담자 E), “박제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실제 사람들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는 등(피면담자 G), 역사적 사건을 자신 및 현재와 연결하고, 역사의 역동성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억공간 방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감상과 사유를 하게 된 청년들은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후 스스로 기억공간을 방문하기도 하였다(피면담자 E, F).

정리하자면 기억공간은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청년세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면담자들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교육, 구술 등의 방식보다 기억공간 방문이 인식 구체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억공간이(교육, 구술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학교, 집과 같은 공간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면담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5·18 민주화운동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현장감', '사건 당시 발생한 가시적 흔적', '희생자들의 묘', '사건 관련 사진 자료'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세대에게 이처럼 사건이 발생한 곳, 사건 당시의 흔적 혹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곳, 희생자들의 묘역이 조성된 곳과 같은 기억공간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느끼고, 사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공간에서의 공간 경험을 통해 과거의 사건은 비록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으로 변모하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후대에 계승된다.

2) 미래 행동에 대한 결심

일부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 방문을 통해 단순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고등학교 때 망월동 묘역에 다 같이 갔는데, 묘역에 이한열 열사님이 계신단 말이예요. 가서 보니까 일단 민주주의 문부터 해서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가 가슴이, 와닿지 않다가도 그런 공간에 가면 가슴이 더 뭉클해지고, 이제 저희가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라도 더 기억해야겠다.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_피면담자 B

피면담자 B의 답변을 통해, 기억공간 방문 경험과 이를 통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의 구체화는 해당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 실천과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당시 시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하게 만든다는 Hałas(2010)의 연구를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피면담자들을 통해서도 관찰되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엄청난 흐름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내 자신이 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켜낸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폭력적인 성향이나 언행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후략)_피면담자 E

피면담자 E의 경우, 기억공간 방문 이후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당시와 같이 국가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즉 개인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면담자 H는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던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보며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불합리한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학생들끼리 뭉치기 위해서 내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기억공간을 방문했던 경험은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청년세대가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기억공간이 단순히 후대에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혜란(2016)이 언급한 것처럼, 기억공간은 과거 사건의 상징성을 현재와

미래에 물질적으로 구현한 장소이다. 즉, 기억공간은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등에 대해 결심하게 만든다. 이는 앞 절에서 논의한 대로 기억공간에서의 공간 경험이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과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함과 동시에, 방문자들이 공간에 구현된 기억을 자신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억공간을 방문함으로써 방문자들에게 계승된 문화적 기억은 방문자들이 과거 사건을 자신과 관련지어 개인적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3) 사건에 대한 기존 인식의 확장

기억공간 방문 경험은 피면담자들이 기존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거기(망월묘지공원) 가면 5·18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백남기 농민 같은 분들이나 노동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열사분들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도 5·18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게 됐죠. ‘5·18에는 단순히 독재자를 몰아내려는 것 이상의 정신이 있을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일 수도 있고,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노동 해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5·18 정신에 대해서 매년 망월동 묘역을 갈 때마다 좀 새롭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_피면담자 I

피면담자 I의 경우, 망월묘지공원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뿐 아니라 다른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중 사망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 5·18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독재자를 몰아내려는 것 이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일 수도 있고,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노동 해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피면담자 D와 L 역시, 망

월묘지공원에 안치된 다른 사건의 희생자의 묘를 보며 5·18 민주화운동이 지금의 사회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인 실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피면담자들의 답변은 기억공간에서의 공간 경험이 과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인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방문자들은 과거의 사건이 역사 속에 단일하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 그리고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기억공간을 방문했을 때 방문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적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기억공간에 전시된 정보와 자료를 보고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구체화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문객에 의해 공간에 구현된 사건의 의미가 다양해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문화적 기억은 하나의 단편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기억으로 발전한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면담자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교육, 미디어, 구술 등의 경로로 접했을 때는 해당 사건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기억공간 방문 이후, 이 인식은 구체화되었고, 해당 사건이 자신과 연관된 것 같다고 느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 및 호기심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사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개인과 시민사회의 실천 및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확장되기도 하였다. 정리하자면 기억공간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가진 의미가 해당 사건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어 이들의 인식 속에 착근되고, 나아가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지거나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기억공간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가 해당 사건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억공간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가진 의미가 이들에게 계승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5.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의 구성을 통해 바라본 문화적 기억

본 절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의 공간구성과 피면담자들이 언급한 기억공간의 특징을 연관 지어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 없는 세대는 기억공간의 어떠한 특징을 주로 기억하는지, 과거 사건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기억공간의 공간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청년세대가 해당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억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피면담자들에게 ‘누군가 당신에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어느 기억공간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기억공간이 타 공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조성된 기억공간들에 대해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기존 기억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느 공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가’ 등의 질문을 하였다.

1) 가시적인 흔적과 자료

많은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이 당시 모습과 흔적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 해당 사건을 기억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피면담자 A, F, H, J, K는 전일빌딩과 구 전남도청이 다른 기억공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외벽의 총탄 자국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고 응답했다.

전일빌딩은 총 자국을 표시해 놓고, 도청 앞에 광장처럼 헤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그림 1〉 전일빌딩 외벽의 총탄 자국(왼쪽)과 망월묘지공원 전경(오른쪽)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놓은 게 뭔가 여기서 시위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뭔가 현장감이 좀 더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공간들보다. (중략) (전남대 정문은) 거기에 기념한다고 새롭게 생긴 구조물이랑 이런 걸 보니까 현장감이 덜 드는 것 같아요. 정문에 보면 거기에 막 구조물 세워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뭔가 기념할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 갔을 때 '그때 이랬겠구나'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반면 전일빌딩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그랬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요._피면답자 A

피면답자 A는 전남대 정문의 경우 당시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일빌딩의 경우 당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고, 사격 흔적과 같은 사건 당시에 생긴 흔적 역시 보존되어 있어 5·18 민주화운동이 실제로 발생한 곳이라는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했다. 피면답자 D는 망월묘지공원의 넓은 부지에 늘어선 묘지들이 “죽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죽음에 대해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망월묘지공원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공간으로 꼽았다. 피면답자 I는 전남대학교 정문에 당시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피면답자 F는 전일빌딩 내부에 빔 프로젝터, VR 등 첨단기술을 통해 방문객이 당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해당 기억공간의 긍정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다.

〈그림 2〉 빔 프로젝터로 5·18 당시 상황을 재현한 전일빌딩 전시공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건물의 외관, 사격 흔적, 묘역, 사진, 빔 프로젝터와 VR 등 피면담자들이 언급한 기억공간의 요소들은 형태와 만들어진 과정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가시적’인 흔적 혹은 시청각자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을 방문하여 위 요소들을 통해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희생에 대해 떠올렸다. 이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가 해당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건물의 외관, 사격 흔적, 사진 등), 희생자들과 관련된 요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묘역),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요소(빔 프로젝터, VR 등)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피면담자 A가 언급한 전남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정문에 비치된 사진을 제외하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각 자료, 체험형 전시공간의 조성은 미약했고, 추모비, 걸개그림, 조형물, 텍스트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남대학교 정문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5·18 사적지구나. 5·18의 시발점이구나’ 하는 것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상 속에 가장 잘 침투해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너무나도 잘 침투해 있어

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누구한테 듣지 않으면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_피면담자 E

전남대 정문은 5·18의 현장이기는 했는데 그때랑 학교 경관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전남대병원도 사실 많이 가봤지만 뭔가 5·18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서..._피면담자 A

기억공간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질문했을 때 피면담자들이 기억공간의 구성요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피면담자 A와 같이, 피면담자 E는 전남대학교 정문이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폭력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획전시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피면담자 K의 경우 구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의 외벽에 총탄 자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억공간에 대한 피면담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앞 절인 4절에서의 논의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4절에서 '기억공간을 통한 문화적 기억의 형성'과 관련해 기억공간에서의 공간 경험은 청년세대가 과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심하게 하고,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식을 확장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억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흔적과 자료였다.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과 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자신의 일처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다른 노동운동, 민주화운동과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당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흔적과 자료,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묘역과 같이 '가시적'인 요소들인 것이다.

위 논의를 정리하자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기억공간을 통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세대에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기억공간이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희생자들이 안치된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시각적 자료를 체험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해당 세대에게 문화적 기억으로 체험 및 재현된다.

2) 공간의 역사적 의미

일부 피면담자들은 특정 기억공간을 해당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연관 지어 기억하기도 했다. 피면담자 B, C, H는 구 전남도청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공간으로 꼽으며, 그 이유로 구 도청이 최후의 항전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장소라는 점을 들었다. 피면담자 E와 I는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는 이유로 전남대 정문을 꼽았다. 이들(피면담자 B, C, E, H, I)은 각 기억공간이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군대에 맞서 싸웠던 격전지',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억공간들을 가장 인상적인 곳으로 꼽았는데, 이는 전 절에서 언급되었던 '가시적'인 요소의 존재 여부와 다소 상반된 특징을 보여준다. 역사적 의미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 해당 사건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계승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모습, 가시적인 흔적 등이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나, 해당 사건의 역사적 의미 역시 중요하게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적 기억은 물리적·시각적인 구현 외에도 교육, 구술, 미디어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음을 위 피면담자들의 답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

미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피면답자들도 있었다. 피면답자 I는 모든 기억공간이 당시 발생했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그 이전 60년 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면답자 L 역시 현존하는 기억공간이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성격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L은 이에 덧붙여 기억공간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주류 담론과 대중적인 역사 인식에 흡수되어 있어 다양한 입장과 해석을 비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피면답자 D는 당시 군부에 의해 많은 학살과 폭력이 자행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억공간이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피해자로만 남는”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웠다는 점에도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이 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기억공간에 비치되거나, 큐레이터가 다양한 시각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타협을 하고, 매개되고 적응된다는 아스만(2011)의 서술과 연관된다. 문화적 기억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이후 세대에 계승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계승받는 세대는 수동적으로 문화적 기억을 전달받는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관과 가치관의 관점에서 계승된 문화적 기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위 논의를 문화적 기억이 공간상에 구현된 형태인 기억공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각 주체는 기억공간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해당 기억공간이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인식 형성의 방향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다. 기억공간을 방문하는 이들은 공간에 구현된 역사적 의미와 사실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지기도 한다. 기억공간이 계승하고자 하는 문화적 기억은 이를 수용하는 세대의 가치관 및 주관과 상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다양해진다.

3) 일상생활·현재와의 반복적 교차

일부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 자주 방문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 일상생활과 교차하는 점을 기억공간의 장점으로 언급했다.

전남도청은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광주는 시내가 거기(충장로 일대)밖에 없으니 까 시내를 가면 그계(구 전남도청) 보여요. (중략) 저는 어릴 때 시내를 엄마랑 다녔거든요. 엄마랑 가면 엄마가 건물 보면서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5·18을 추모하기 위해 전남도청에 간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한 번 알게 되니까 '저 총알 자국이 그 거구나' 계속 이렇게 상기가 되는 거... _피면담자 K

광주 출신인 피면담자 K는 어린 시절부터 5·18 민주화운동 중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 자주 방문한 경험이 있다. 그는 어머니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구 전남도청에 대해 설명을 해준 이후, 그곳에 갈 때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피면담자 C와 J를 통해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구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이 광주 최대 변화가에 위치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화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아도 쇼핑이나 외식을 위해 시내에 갔을 때 해당 공간들을 마주치게 되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피면담자들의 모교인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피면담자 E, G, H, I, L은 학교에 다니며 캠퍼스 곳곳에 위치한 기억공간을 지나치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결과적으로 5·18이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닌, 자신의 삶과 일상에 녹아 있고 가까운 사건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태어나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지만, 쇼핑, 외식, 친구와의 만남 등 개인적인 목적

〈그림 3〉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발생지였던 구 전남도청 앞 분수광장 일대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을 위해 충장로·금남로와 같은 변화가에 가거나, 대학에 재학하면서 여러 차례 해당 공간들에 위치한 기억공간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만들었다. 이는 기억공간이 각 주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과 교차할 때, 해당 기억공간이 기념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의 존재가 해당 사건을 당시 시대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와도 연관되어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공간의 특징으로 꼽기도 했다.

그때가 5·18 시즌이어서 해놓은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 전남도청) 정문에 보면 항상 5·18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벽 같은 거 세워놓고 옛날 사진들 붙여놨었는데, 5·18 (당시) 사진 보면 분수 중앙으로 이렇게 사람들 멍게멍게 모여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보고 딱 뒤돌면 분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동시에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진

보고 '옛날에는 이랬던 말이야' 이러면서 좀 기분이 묘했죠. 많이 바뀐 현장도 보고, 좀 상상도 되고._피면답자 K

이 인용처럼 기억공간이 후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역사적 의미는 현재 시점과 결합되어 후대에 수용되기도 한다. 피면답자 K는 구 전남도청 앞에 전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앞에서 열린 시위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같은 장소의 현재 모습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었던 기억을 언급했다. 그는 사건 당시를 담은 사진과 같은 장소의 현재의 경관을 동시에 보면서 5·18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두 시기의 모습을 비교하기도 했다. 피면답자 G는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대학생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전남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피면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기억공간은 특정 공간과 시간에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현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사유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적 기억이 사건 발생 시점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와도 연관되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공간에 위치한 기억공간은 역사적 사건이 이들의 일상과 교차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 역시 시사한다.

하지만 일부 피면답자들은 기억공간이 일상생활과 교차함으로써 오히려 공간이 가진 의미가 퇴색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피면답자 D의 경우,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면답자 J의 경우, 구 전남도청 인근의 대형 상권이 기억공간을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피면답자 H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근에 있는 5·18 산책로가 사람들에게 5·18의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남대가 기억공간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사람들의 인식에 가닿지 못하고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통해, 기억공간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위치한 경우, 일상생활에 가려져 기억공간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방문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억공간에 투영된 문화적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공간과 교차하며 강화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역시 해석할 수 있다.

본 절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가장 많은 피면담자가 꼽은 기억에 남는 기억공간의 구성요소는 '가시적인 흔적과 자료'였다. 2절에서 소개한 본 연구의 분석틀의 내용에서처럼, 공간에 물질적·가시적으로 구성된 과거 사건과 관련된 흔적·이미지는 방문객들이 해당 사건을 체험하고 기억하게 만든다. 특히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가시적 흔적과 자료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기억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연관 지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주 방문하는 일상생활의 장소, 피면담자들이 살고 있는 현재 시점 등과 기억공간이 교차하며 공간의 의미가 강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약화되기도 한다.

6. 결론과 함의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기억공간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청년세대에게 해당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의 공간구성은 청년세대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공간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건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피면

답자들은 기억공간에 방문한 이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는 것을 느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보기도 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다. 피면답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기억공간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후대에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기억공간에 구현된 가시적인 흔적과 자료, 공간의 역사적 의미, 공간이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및 현재와 교차하는 양상 등은 과거 사건에 대한 문화적 기억의 형성 및 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본 연구의 피면답자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시적인 흔적과 자료, 공간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자의 인식을 형성했다. 그리고 일부 기억공간은 피면답자들의 일상생활과 거듭하여 교차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도 했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억공간에 구현된 가시적 흔적과 자료의 중요성이다. 많은 피면답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의 특징으로 건물의 외관, 사격 흔적, 묘역, 사진자료, 빔 프로젝터, VR 영상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관련 흔적과 자료를 꼽았다. 피면답자들은 기억공간의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겪어본 적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으로 느껴지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이 기억공간에서의 공간 경험을 통해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역시 이러한 가시적인 흔적과 자료의 영향이 컸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억공간에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조성된 당시 상황이나 시민들의 희생을 보여주는 흔적과 자료는 과거의 사건을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시켜 후대에 계승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년세대의 주체적인 문화적 기억 형성이다. 본 연구의 피면답자들은 기억공간이 전시하고 있는 문화적 기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들은 공간 방문 이후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혹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다른 역사적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연관 지어 생각하거나, 현재의 기억공간 공간구성에 대해 이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이들은 기억공간과 공간이 구현하고 있는 문화적 기억을 자신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사유 및 평가하는 주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피면담자들의 모습은 문화적 기억이 단순히 방문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세대는 공간에 구현된 역사적 사건을 능동적으로 사유하며 공간이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적 기억과 다른 역사인식을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단일하지 않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하여 후대에 계승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억공간과 문화적 기억, 두 개념을 연결하여 기존 연구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청년세대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 형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청년세대에게 기억공간을 통해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또한 해당 세대는 기억공간의 어떤 요소를 통해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떠올리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 학술적 의의는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다수의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의 가시적 흔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고, 일부 피면담자들은 기억공간에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억공간이 일상생활 공간과 교차함으로써 공간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력이 열린다고 응답한 피면담자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억공간을 조성할 때 방문객들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시적 볼거리를 다수 배치하고, 사건에 대한 주류적 담론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배치하며, 기억공간의 의미가 일상공간에 매몰되지 않도록 기억공간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이 논의된다면 과거 사건을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시켜 후대에 계승하려는 시도가 더욱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본 연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이라는 하나의 사례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피면담자들의 특성 측면에서 20대에 치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때문에 다른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억공간을 통한 문화적 기억의 형성, 다른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의 기억공간 방문 이후 문화적 기억 및 사건에 대한 인식 형성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타 기억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억공간이 가진 차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방식을 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억공간, 청년세대가 아닌 다른 연령대에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4.04.22.

1차심사완료일: 2024.05.27.

1차수정완료일: 2024.06.07.

2차심사완료일: 2024.06.07.

게재확정일: 2024.06.07.

최종원고접수일: 2024.06.17.

Abstract

**Experience and Succession of Cultural Memory via Places of Memory:
A Case Study on Spatial Experience of Young Generation in places of Memory
for May 18 Democratic Uprising**

Joowon Oh

This study analyses how the meanings of past historical events, such as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which younger generation could not experience directly, are transmitted to them using the concepts of 'place of memory' and 'cultural memory'.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laces of memory serves as a passage through which cultural memory is experienced and passed down to later generations. Employing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landscap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1) the impact of places of memory on the formation of awareness and thought regarding past historical events, and 2) the elements within the places of memory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cultural mem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laces of memory function as an effective medium and passage through which generations who could not directly experience historical events form perceptions about those events. Second, visible traces and records embedded in place of memor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paces, and intersections of spaces with everyday life and the present ar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and succession of cultural memory.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c discussion on the transmission of cultural memory via places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explored,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creating places of memory.

Keywords: place of memory, cultural memory, May 18 democratic uprising, young generation, spatial experience

참고문헌

- 김미경. 2008. 「기억의 전환, 저항 그리고 타협: 광주5.18민주묘역과 히로시마평화자료관을 둘러싼 기억담론의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권 1호. 177~201쪽.
- 신혜란. 2007.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5: 심층인터뷰 연구방법론: 타인에게 배우는 데이터 수집·분석기법」. 《국토》, 제307호. 60~68쪽.
- _____. 2016. 「기억의 영토화」. 《공간과사회》, 제26권 3호. 115~154쪽.
- _____. 2022.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이매진.
- 아스만, 알라이다(Aleida Assmann). 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옮김. 서울: 그린비.
- 이민경. 2022. 「독립의 기억과 기념의 장소: 말레이시아 메르테카 광장 (Merdeka Square)」. 《역사학보》, 제256권. 533~570쪽. DOI: <https://doi.org/10.16912/tkhr.2022.12.256.533>
- 정호기. 2000. 「5·18과 도시공간의 상징적 구성」. 《공간과사회》, 제14호. 130~155쪽.
- 桑林賢治. 2021. “先住民アイヌによる「記憶の場所」の構築—北海道・真歌山におけるシャクシャインの顕彰を事例に—.” 人文地理, 73卷 1号. pp.5~30. DOI: https://doi.org/10.4200/jjhg.73.01_005
- Alexander, J. C. 2004. “Toward a theory of cultural trauma.” in Alexander J. C., Eyerman, R., Giesen, B., Smelser, N. J. and Sztompka, P(eds.). *Cultural trauma and collective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rețan, R. and Doiciar, C. 2023. “Postmemory sits in places: the relationship of young Romanians to the communist past.”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64, No.6, pp.679~704. DOI: <https://doi.org/10.1080/15387216.2022.2052135>
- DeTurk, S. 2013. “The Contested Space of Memory: New York’s 9/11 Memoria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community agendas in the arts*, Vol.7, No.3, pp.47~56. DOI: <https://doi.org/10.18848/2326-9960/cgp/v07i03/36373>
- Dicco-Bloom, B. and Crabtree, B. F. 2006.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Medical Education*, Vol.40, No.4, pp.314~321. DOI: <https://doi.org/10.1111/j.1365-2929.2006.02418.x>
- Drozdowski, D., De Nardi, S. and Waterton, E. 2016. “Geographies of memory, place and identity: Intersections in remembering war and conflict.” *Geography*

- Compass*, Vol.10, No.11, pp.447~456. DOI: <https://doi.org/10.1111/gec3.12296>
- Dwyer, O. J. 2002. "Location, politics and the production of civil rights memorial landscapes." *Urban Geography*, Vol.23, No.1, pp.31~56. DOI: <https://doi.org/10.2747/0272-3638.23.1.31>
- Flynn, M., Kosmarskaya, N. and Sabirova, G. 2014. "The Place of Memory in Understanding Urban Change in Central Asia: The Cities of Bishkek and Ferghana." *Europe-Asia Studies*, Vol.66, No.9, pp.1501~1524. DOI: <https://doi.org/10.1080/09668136.2014.957926>
- Foote, K. E. and Azaryahu, M. 2007. "Toward a Geography of Memory: Geographical Dimensions of Public Memory and Commemoration."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35, No.1, pp.125~144.
- Gerster, J. and Maly, E. 2022. "Japan's Disaster Memorial Museums and framing 3.11: Othering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n cultural memory." *Contemporary Japan*, Vol.34, No.2, pp.187~209. DOI: <https://doi.org/10.1080/18692729.2022.2112479>
- Hagen, J. 2022. "Places of memory, historic preservation, and place attachment in Nazi Germany." *Geographical Review*, Vol.112, No.1, pp.147~170. DOI: <https://doi.org/10.1080/00167428.2020.1799711>
- Halas, E. 2010. "Time and memory: A cultural perspective." *Trames*, Vol.14, No.4, pp.307~322. DOI: <https://doi.org/10.3176/tr.2010.4.02>
- Hirst, W. and Echterhoff, G. 2008. "Creating Shared Memories in Conversation: Toward a Psychology of Collective Memory." *Social Research*, Vol.75, No.1, pp.183~216. DOI: <https://doi.org/10.1353/sor.2008.0061>
- Hirst, W. and Manier, D. 2008. "Towards a Psychology of Collective Memory." *MEMORY*, Vol.16, No.3, pp.183~200. DOI: <https://doi.org/10.1080/09658210701811912>
- Hoelscher, S. and Alderman, D. H. 2004. "Memory and place: geographies of a critical relationship." *Social & Cultural Geography*, Vol.5, No.3, pp.347~355. DOI: <https://doi.org/10.1080/1464936042000252769>
- Hua, A. 2005. "Diaspora and cultural memory." in Agnew, V(ed.). *Diaspora, Memory and Identity: A search for Hom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Hubner, E. and Dirksmeier, P. 2023. "Geography of placemories: deciphering spatialised memories." *Cultural Geographies*, Vol.30, No.1, pp.103~121. DOI: <https://doi.org/10.1177/14744740221123564>

- Hussen, F., Stephens, J. and Tiwari, R. 2020. "Cultural Memories for Better Place Experience: The Case of Orabi Square in Alexandria, Egypt." *Urban Science*, Vol.4, No.1, pp.1~14. DOI: <https://doi.org/10.3390/urbansci4010007>
- Kappler, S. 2017. "Sarajevo's ambivalent memoryscape: Spatial stories of peace and conflict." *Memory Studies*, Vol.10, No.2, pp.130~143. DOI: <https://doi.org/10.1177/1750698016650484>
- Knapp, S. 1989. "Collective memory and the actual past." *Representations*, No.26, pp.123~149. DOI: <https://doi.org/10.2307/2928526>
- McDowell, L. 2004. "Cultural memory, gender and age: young Latvian women's narrative memories of war-time Europe, 1944-1947."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30, No.4, pp.701~728. DOI: <https://doi.org/10.1016/j.jhg.2003.08.020>
- Nora, P.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No. 26, pp. 7~24. DOI: <https://doi.org/10.1525/rep.1989.26.1.99p0274v>
- Pulido, L. 2023. "Cultural memory, white innocence, and United States territory: the 2022 Urban Geography Plenary Lecture." *Urban Geography*, Vol.44, No.6, pp.1059~1083. DOI: <https://doi.org/10.1080/02723638.2023.2203585>
- Roediger, H. L. and Abel, M. 2015. "Collective memory: a new arena of cognitive stud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19, No.7, pp.359~361. DOI: <https://doi.org/10.1016/j.tics.2015.04.003>
- Rose-Redwood, R., Baird, I. G., Palonen, E. and Rose-Redwood, C. A. 2021. "Monumentality, Memoryscapes, and the Politics of Place."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Vol.21, No.5, pp.448~467. DOI: <https://doi.org/10.14288/acme.v21i5.2266>
- Sather-Wagstaff, J., 2011, *Heritage that hurts: Tourists in the memoryscapes of 11 September*. London: Routledge.
- Shin, H. 2016. "Re-making a place-of-memory: The competition between representativeness and place-making knowledge in Gwangju, South Korea." *Urban Studies*, Vol.53, No.16, pp.3566~3583. DOI: <https://doi.org/10.1177/0042098015614481>
- Shin, H. and Jin, Y. 2021. "The politics of forgetting: Unmaking memories and reacting to memory-place-making." *Geographical Research*, Vol.59, No.3, pp.439~451. DOI: <https://doi.org/10.1111/1745-5871.12467>
- Till, K. E. 2003. "Places of Memory." in Agnew, J., Mitchell, K. and Toal, G(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ers.

- Till, K. E. and Kuusisto-Arponen, AK. 2015. "Towards responsible geographies of memory: complexities of place and the ethics of remembering." *Erdkunde*, Vol.69, No.4, pp.291~306. DOI: <https://doi.org/10.3112/erdkunde.2015.04.01>
- Tsiftsi, X. 2018. "'This is not a place of memory; this is a place of commemoration' Rethinking Authenticity of the Holocaust Experience Thorough Museum Architecture." *Journal of Narrative and Language Studies*, Vol.6, No.10, pp.17~36.
- Wertsch, J. V. and Jäggi, O. L. 2022. "Habits of collective memory." *Prog Brain Res*, Vol.274, No.1, pp.149~166. DOI: <https://doi.org/10.1016/bs.pbr.2022.07.005>
- Wertsch, J. V. and Roediger, H. L. 2008. "Collective memory: Conceptual foundations and theoretical approaches." *Memory*, Vol.16, No.3, pp.318~326. DOI: <https://doi.org/10.1080/09658210701801434>

웹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National Geographic Education. <https://education.nationalgeographic.org/>